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0호 [주제 제25313호] 주제 105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인민당에서는 좌당회와 영화감상회가, 양평리에서는 장연회가 5일과 7일에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대체로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인티아인민당 고위지도자, 인티아공산당 전국시사회 비서, 경인아조선원전협회 회기장 등 발언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대로 주被捕으로 하는 김정은동지의 행보를 꾀하였고, 그 비결은 당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삶의 질과 문화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민원원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께서 우리 당을 명성을 키워온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에게 주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전설 하시었다. 그에게는 김정은동지의 행보를 꾀하였고, 그 비결은 당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삶의 질과 문화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민원원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에게 주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전설 하시었다. 그에게는 김정은동지의 행보를 꾀하였고, 그 비결은 당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삶의 질과 문화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민원원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에게 주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전설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에게 주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대량공산당(파스-민주주의)이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절세위인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끌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

당정책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52돐이 되는 끝없는 날마다 오는 이 시작 전당의 당일 군들은 당의 유일직령도제계를 세우는 사업을 품지없이 심화시켜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들어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행도를 충실히 떨어나는 불을 걸기를 가다듬고 있다.

당의 방침과 절정, 지시를 부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본당의 유일직령도제계를 확립하는 과정임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 판찰을 성명선으로 풀어놓고나가는 청원북도당위원회의 사업에는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과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들어줘야겠다.』

당에서 준 파업을 당이 쓰이는 데는 높이에서 최단기간에 루조전 판찰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당위원회가 선차적인 관심을 두는 당의 방침과 지시가 아래에 즉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아래당조직들에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지도원들이 해당 단위들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방침과 지시가 아래에 즉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평안북도당위원회 사업에서

제 있는 단위들에서도 당의 방침을 즉시에 접수할수 있게 대책을 세울수있어 도안의 그 어느 상상미에 앉아 문전돌을 드니 하거나 당의 목소리가 신속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당의 방침과 지시를 어느 하루도 놓칠이 없이 환히 펼쳤고 그것을 자아 하여 참신한 방법론을 탐구하였다.

도소재지를 사회주의문화국의 체제에 맞게 잘 꾸밀어 대한당의 방침을 편철하기 위한 두 정파장을 풍보자.

도당위원회에서는 다중살림집개간과 도로포장, 하수도망정비, 물도망정 등 20여 개의

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방침내용과 단위를

의 실태를 손꼽보면서 펼쳤을 것이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원장생산방법이며 세체트생산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상으로 상세히 가르쳐주는 도당책임일군의 강의는 일군들에게 당정책관찰에서 알제를 메고나가면서 뜻은 실력을 키우도록 학습으로 개발해 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은 그 절행정형을 사무실에 앉아 문전으로 펼쳐하지 않았다. 대중살림집개

건공사장들을 직접 봤을때는 떡제미장면을 고르롭게 하는 문제 등을 강조하였으며 깊은 땅

차를 끄고 차면서 새로 포장한 도로를 전조등불빛에 비추어보며 수평정강장등을 가능화보았

다. 우수방정리정형을 구체적으

로 해야 하기 위하여 기동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정책판찰에서 도당위원회가 주목하는 데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방침과 지시가 아래에 즉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아래당조

직들에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지도원들이 해당 단위들에 당원들과 근

로자들속에 당의 방침과 지시가 아래에 즉시에 전달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그동우의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 때 대 한 당의 방침관찰정형을 알아보면 도당책임일군은 중요한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도에는 당정책관찰에서 주민구구식 일본 새를 구복하고 무너진 실력전을 멀리도록 요구장을 높이었다.

무엇보다도 협의회, 총화모임 등을 실현체제의 계기로 잘 리

용하였다.

당의 방침관찰과 편철한 형의 회나 총화모임에서 도당책임일

군은 일군들에게 자주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한

다. 이에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설명해준다. 원장생산방법이

며 세체트생산방법 등에 대해서도

도 전문가이상으로 상세히 가르

쳐주는 도당책임일군의 강의는

일군들에게 당정책관찰에서 알

제를 메고나가면서 뜻은 실력을 키우도록 학습으로 개발해 하였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원장생산방법이며 세체트생산방법 등에 대해서도 도 전문가이상으로 상세히 가르쳐주는 도당책임일군의 강의는 일군들에게 당정책관찰에서 알제를 메고나가면서 뜻은 실력을 키우도록 학습으로 개발해 하였다.

이에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원장생산방법이며 세체트생산방법 등에 대해서도 도 전문가이상으로 상세히 가르쳐주는 도당책임일군의 강의는 일군들에게 당정책관찰에서 알제를 메고나가면서 뜻은 실력을 키우도록 학습으로 개발해 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은 그 절행정

형을 사무실에 앉아 문전으로 펼쳐하지 않았다. 대중살림집개

건공사장들을 직접 봤을때는 떡제미장면을 고르롭게 하는 문제

등을 강조하였으며 깊은 땅

차를 끄고 차면서 새로 포장한

도로를 전조등불빛에 비추어보며 수평정강장등을 가능화보았

다. 우수방정리정형을 가능화

하는 사업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수동탄광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파원으로 되어온 것은 훌륭했다. 30여년간 한적종에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은 간절한 소망을 나려앞에 벗을수 없는 희망을 지운 아버지 때문에 선풋터놓지 못하고 살아온 너성동부군당위원회가 그를 전적으로 보증해나

셨던 것이다.

고려원 정치적성명을 밤야간

은 너성당원은 당의 믿음에 보

답한 일들을 안고 선풋증산군정

의 일장에 섰다.

잘못 살았어온 지난날과 겨우

새 출발을 하려는 청년들로

김진정년동물죽에 무너주고 사

업과 생활을 잘 둘러싸워 혁신

자들로 키운 사업에 드는 힘으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

어면서 사업을 풀어놓았습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걸어들어 그들의 힘으로

설립임금의 모법을 따라 초급

당원들도 무거운 마음과

의 사업을 주력하여 많은 단위

의 사업을 주력으로 했던

당의 70일전투기 중산

생산실적의 뛰어진적이 있었

다. 경에 내려간 부위원장 김

민덕동부를 비롯한 초급당원군

들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

여서 사업에 힘을 더해 혁신

을 들이켰다.

초급당위원회는 군중파의 사업

사업에 주력하여 많은 단위

의 사업을 펼쳐놓았습니다.

경에 들어간 초급당위원회는

단위를 일어뜨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돐에 즈음하여

(시) 어머니당에 드리는 송가

어머니와 불러
그 이름도 청근한 태이어
내 그대를 우러러
삼가 노래를 드리려니
이 가을 사투리는 고마움에 젓고
북방지는 궁지로 벽과울파
당이여 그대는
이 세상 제일 다심한 어머니
내 눈빛만 보고도
마음속에 까지 해야려주고
소박한 내 목소리만 들고도
남들에 좋은 줄 이루어주는 어머니
당이여 그대는
이 세상 제일 열렬한 심장을 지닌
어머니
바람불수록 날이 찰수록
이 물을 더 드겁게 끼안아
사랑의 열을 부어주시며
운길을 광그리 물데우는 어머니

다정히 물으시는것만 같은
그윽하고 정깊은 어머니의 눈빛을
이 어머니앞에
대없이 미더운 자식으로 내 살리라
이반 꼬박 밟히시고
또다시 며나실 새벽길
내 면지 달피여 천이풀 헐고
이 나파 길들이 다덟도록 이어가실
천신의 그 자작 이 아래로 발불파

당이여 그대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자식들을 둔
어머니
그 품에서 부럽없이 자라나는 아
이들은
그대의 뜻대로
대바쁘고 정의로운 인간이 되리파
그대를 닮아 열렬한 우리 심장
하나로 고통치며 일심의 대오 머
굳게 다지리
웅진한 불풀의 힘은
혹룡의 만리마로 세계를 단숨에
앞서나가리라

그대 애인오는
만복의 아침을 위하여
우리 불리는 별이 되리라
그대 선군의 흥에 이룩해가는
행원한 승리를 위해
그대 삼현례에 안아올
민족의 친연한 새날을 위해
우리 생의 모든것 이끼지 않으리

(시) 내 운명의 품

김 정 경
오늘도 이 가슴에
사기처럼 고이 남아
한없는 고미움의 물결을 살아오는
못 웃을 추억들이 내게 있어라

얼미의 손목잡고 웃지친 풀이서면
당속 인이 반겨맞던 고양원의 밟
은 얼굴
나의 손 꼭 꼭 꼭 첫 글자 익혀주던
소학교시절의 담임선생님

그때면 물었다라
사며였던 어머니같이 그 모든 사
팔을
왜 그리도 정답고 살뜰했던지
그것은 그대로 나를 품어 키워준
당이여, 그대 사랑의 세계였던줄

이직도 눈에 선택라
온방 내 품에 맞춰
형의 웃 줄이시던 어머니
한날한시에
등록 안겨줄 세 남매의 선풀웃들에
눈물만 평평 떨구던 모습

그날의 따뜻한 사랑의 해빛이
내 머리위에 내 앞길에
구민리로 빠져
나는 항상 노래의 웃음을 뿐이며
세상이 춤도록 활개치며 자랐던지

박근혜는 이제라도 민족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며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날이 갈수록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조선만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열기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천하고 심술악마인 박근혜만이 『북핵 포기』나발을 계속 불어대며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부집행이 돌아다니며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제20대 국회『국회원칙』에 나와 또다시 우리의 혁을 물고들어지며 운 갖다 걸맞을 줄이 아니나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지에 좌우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혁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내외가 한결같이 정하듯이 오늘 북남관계개선의 기본에는 치미보수체당의 반공화국적 시장경쟁과 동족대결책 등에 있다.

지금껏 미국과 함께 우리의 『제재봉쇄』와 『금면사태』를 학교교재로 꾸비보수체당은 저들의 재물을 고집으로 남겨버리며 남

로 강화남전되는 우리의 혁무력을 그야말로 실상에 빙친 비수처럼 가장 아프게,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때문에 일으나마 외위대면 북남관계 개선도, 그 무슨 『신히』에 대한 제창도 완전히 접어버리고 동족의 혁을 기어이 없애버리고 상점의 마지막 가방에 철부지처럼 미닫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혁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껏 아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박근혜에게 알اب을 주었으며 이를반을 쓰고도 주고 개설의 기회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두살스럽게 뿐만 아니라 조선만도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혁이 조선만도와 동북아시아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 박근혜가 동족의 선의와 진정에 용납 못 할 땅발로 또다시 전면도전과 대립을 일으킨 조선만도에 걸린 홍악무도한 저의에 대한 우리의 짚장을 밟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혁개발이 북남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가장 파렴직한 혹백만도의 극악이다.

우리의 혁이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북남관계의 본질도 모르고 알리고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결에 편향되어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혁이 조선만도와 동북아시아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처럼 전쟁이 이해될 때마다 그들이 끌어내는 것은 사

내에 끌어온 것이다.

또한 우리의 혁이 조선만도와 동북아시아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에

게 위세를 부리며 무섭게 험악하고 상대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위험』을 떠나 전에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부터 새겨보아야 한다.

원래 위협이란